

“특별한 추억 쌓고 밝은 어른으로 성장하길”

광주신애원 ‘행복한 어린이날’

두달간 14개 단체·개인 20여명 모금 100여명 위한 장난감·간식 등 후원 신애원 출신 자립 청년들 기부 ‘훈훈’ 경품·운동회·달란트 시장 내내 ‘웃음’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광주 남구 송하동 아동양육시설 신애원에서 ‘행복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운동회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볼풀공’을 던져 풍선 터뜨리기 시합을 하는 모습.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밝은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나갔으면 합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10시 광주 남구 송하동 신애원에서 ‘행복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신애원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신애원과 서구 소재 새누리교회 소속 어린이 약 100명을 위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올해가 몇 회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신애원이 설립된 1963년 이후 꾸준히 열려오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에는 늘 지역 기업과 개인 등이 합

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도 지난 3월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모금이 진행됐으며, 총 14개 단체와 개인 기부자 20여명이 현금은 물론, 장난감이나 간식 등 현물도 후원했다.

특히 신애원 출신 청년들이 소속된 ‘호남오픈 청년회’에서 과거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환영·축사·모범어린이 표창에 이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후원품 전달식이 진행되자 어린이들은 너도나도 들뜬 표정으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애원은 일괄 전달된 후원품을 어린이 개개인에게 조금씩 배분했고, 일부 품목은 오전 10시36분부터 시작된 운동회의 경품으로도 활용

됐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끼를 입은 ‘자람’, ‘돌음’ 팀으로 나뉜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벌인 시합은 이어달리기였다. 각각 토끼와 거북이 모양의 대형 튜브에 탄 어린이들은 “하나, 둘”을 외치며 발걸음을 맞춰갔다.

시합 중 돌음팀은 자람팀과 격차가 벌어지자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하는 등 승부를 떠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관객들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게 했다.

이후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볼풀공’을 상대팀의 진영에 많이 던지는 시합과 풍선 터뜨리기, 줄다리기 등이 이어지면서 운동회는 자람팀이 최종 승리했다.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새누리교회에서 준비한 달란트 시장이 열렸는데,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구매한 간식 등을 나누며 추억을 쌓아 갔다.

김요셉 신애원장은 “정책·물질·정서적으로 도움을 준 후원자 덕에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었다”며 “신애원에서의 추억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어른이 돼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활에 소중한 날들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5월의 5·18민주유공자’ 故 정동년씨



5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정동년(사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선정됐다.

6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고교 시절 4·19혁명에 참여했고, 전남대학교 재학 중 6·3한일외교 반대 투쟁을 주도해 구속·체적됐다.

이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5·18 관련자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후에는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5·18 진상 규명과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에 앞장섰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故 정동년 전 이사장은 제2구역 1구역 150면에 영면해 계신다”며 “앞으로도 국립묘지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운영자 제32대 목포해양수산청장 취임



운영자(사진) 제32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취임했다.

6일 목포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윤 신임 청장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이번 인사를 통해 목포해양수산청을 이끌게 됐다.

그는 주요 추진 과제로 ▲전국 연안여객운송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연안 해상교통 환경 구축 ▲서남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서 목포항의 지속적 개발과 물류체계 개선 ▲서남권 어업 전진기지 기반 조성을 위한 항만 및 국가어항 개발 등을 제시했다.

윤영자 청장은 “목포해수청이 해양수산 분야 지방특별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관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신임 청장은 1992년 공직에 임명한 이후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연안계획과, 수산자원정책과를 비롯해 혁신행정담당관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박성관 광주소방학교 소방위

‘소방교육혁신’ 행안부장관상



광주시소방학교 박성관(사진) 소방위가 최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1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우수 강의를 선보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소방본부 소속 교수요원들의 교육 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해 중앙소방학교가 주최했다.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교수요원 10명이 참가해 강의 콘텐츠와 교육기법 등을 겨뤘다.

광주 지역 대표로 참가한 박성관 소방위는 ‘현장 생존력 향상을 위한 맨탈 호흡전술’을 강의, 전개 방식과 전달 기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소방위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제44회 공공HRD(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 참가 기회를 얻었다.

광주소방학교는 공공HRD 경연대회에서 현재까지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3회, 장관상 6회 등 총 12회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은 “소속 교수들의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여행 강의의 평가를 통해 소방공무원들과 시민에게 인정받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번은진기자

부음

▲최종민씨 별세, 최황희(여수MBC 기자)씨 조부상=발인 7일(목) 오전 7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식장 20호실(062-240-4455).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JMAK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가 오는 16-17일 국립중앙대학교에서 열리는 제52회 한국일본근대학회(JMAK) 국제학술대회 다문화공생분과에서 ‘재(在) 사할린 동포의 모국 귀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1989년을 중심으로’의 논문(공저자 임영언 박사)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1989년 한 해 동안 해체된 외교부 사료집을 통해 1989년 전후 재 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를 둘러싼 당시 소련의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일본정부의 지원, 한국정부의 활동 그리고 관광을 통한 일시 방문, 모국 방문을 통해 귀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JMAK은 발족한 지 26년째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문화와 상호 이해’라는 공동주제로 다문화공생, 일본어학, 일본학, 한일교류 분과 등에서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논문 60여편이 발표되고 토론, 현장 방문이 진행된다. /박성욱기자

6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논문에서 일제 강점기였던 1943년 이후 일본정부의 국가동원령에 의해 약 2만5천~3만5천명의 재일 조선인들이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되거나 징용돼 철도 부설, 비행장 건설, 탄광노동 등 강제노역에 종사했지만 종전 후 일본인들이 거의 귀환한 데 반해 재일조선인들은 국적 문제로 일본 귀환이 거부돼 사할린에 억류됐다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론 논문은 1989년 한 해 동안 해체된 외교부 사료집을 통해 1989년 전후 재 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를 둘러싼 당시 소련의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일본정부의 지원, 한국정부의 활동 그리고 관광을 통한 일시 방문, 모국 방문을 통해 귀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정 시내버스, 승객 안전·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시 시내버스를 운행중인 (유)라정시내버스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객 안전 캠페인 및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시민 이용시설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출발·급제동 NO! 승객 안전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시민들에게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사고 예방 의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병주 대표이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과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광주정신 계승” 이춘희 제10대 오월어머니집 관장 취임

오월어머니집은 6일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춘희(65·사진) 이사가 제10대 관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8년 2월까지다.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으로 활동하며 진상 규명에도 기여했다.

이춘희 신임 관장은 “오월어머니집이 지켜온 나눔과 연대의 광주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이 신임 관장은 광주 지역 여성·복지·오월여성연구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시민활동가다.

그는 광주전남여성회 회장,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여성복지시설



한빛원자력본부, 영광·고창 아동복지시설 후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에너지자립에서 영광·고창군 아동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물품기탁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한빛본부는 사내 기부금으로 마련한 2천875만원으로 영광군과 고창군 관내 27개 아동복지 시설에 풍성한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고, 지역

아동 440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후원했다.

김성연 본부장은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시 봉황면 청년회, ‘면민의 날’ 나눔봉사

나주시 봉황면 청년회는 “최근 열린 제42회 봉황면 면민의 날 행사에서 따뜻한 차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한명국 청년회장은 “예상보다 더 뜨거운 호응을 보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봉황면 청년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지속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황면 청년회는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지역민들과 행사장을 찾은 외부인 등 400여명에게 시원한 커피와 전통차를 대접했다.

한편, 1980년부터 이어져 온 봉황면 청년회는 이번 나눔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하며 봉황면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정종환기자

담양 수북면 지사협, 취약계층 외식상품권 지원

담양군은 6일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외식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15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전달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따뜻한 식사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들은 한 달간 지역내 ‘36.5도 사랑나눔 가게’로 지정된 식당 11곳 중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국회한 민간위원장은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